

니버의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

문시영(남서울대 교수)

I. 니버의 재발견

II. 니버, 공공신학자인가?

III. 시민사회의 기독교 사회윤리로

1. 공통의 지향점: 사회문제의 신학적 성찰 필요성
2. 인식의 전환: 사회정의에서 공공성의 예토스로
3. 지평의 확대: 사회현실의 윤리에서 시민사회의 윤리로

IV. 니버를 넘어서

• ABSTRACT •

There are so many studies on Christian social ethics of R. Niebuhr. This paper is a proposal of new interpretation which concerns on his public perspective. Especially, this paper based on public theology of Max. L. Stackhouse.

With this subject, this paper has some clues: (1) L. Rasmussen's view on Niebuhr as a public theologian or a theologian of public life, (2) M. Marty's guide Niebuhr as a public theologian, (3) Max. L. Stackhouse's Niebuhrian approach to Christian social ethics. On these basis, this paper tried to regard Niebuhr as an origin of public theology in contemporary meaning.

Moreover, this paper applies Korean theologian Koh Bumseo's view of Niebuhr's Christian social ethics. According to Koh, Niebuhr has three points of view on social ethics: (1) Christian social ethics have to concern for social realities. (2) Christian social ethics must pursue the approximation of agape through social justice. (3) Christian social ethics have to treat the social structure as an important factor.

Now, this paper mixed some clues of Rasmussen, Marty, and Stackhouse's view points and Koh's insights to understand Niebuhrian concept of Christian social ethics. So, this paper has focus on three points: (1) Niebuhr's concern for social realities could be connected with the anti-sectarian approach of public theology. (2) Niebuhr's concern for social justice could be connected with the concept of public concern of church in public theology. (3) Niebuhr's emphasis on social structure bears the concern for the political-economic structures in public theology. In conclusion, this paper proposed a possibility to interpret Niebuhr as a forerunner of public theology, the Christian social ethics in global era.

Key Words: Christian Social Ethics, Public Theology, Social Reality, Social Structure, Anti-Sectarianism

I. 니버의 재발견

니버(Reinhold Niebuhr)는 현대적 의미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듯싶다. 무엇보다도 기독교 사회윤리를 말할 때, 니버의 탁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니버를 어떤 관점에서 조명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적 맥락에서 니버는 이른바 신정통주의라는 용어 탓에 보수와 자유주의 사이의 신학노선 혹은 좌표설정에 관한 해묵은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니버를 정치신학의 상징으로 추켜세우고 한국적 정치신학에서 그를 재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이 니버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아닌 주변의 문제들을 통해 그의 신학을 판단하려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니버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 불필요한 이야기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이 글은 니버의 사회윤리에 대한 바로알기의 시도에 속하고픈 마음을 담고 있다. 혹은 니버에 대한 재조명 내지는 니버의 탁견에 관한 재발견의 시도라 할 수 있겠다. 특히 글로벌 시민사회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에서 니버가 과연 어떤 의미로 수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담아내고자 한다. 어찌 보면, 글로벌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윤리의 모색을 위한 시도인 셈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니버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의 한 시도라 할 수 있을 듯싶다. 이 글이 니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를 더 많이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I. 니버, 공공신학자인가?

니버처럼 대중적으로 알려진 윤리학자도 드물다. 공교육을 통해 미국의 기독교신학자를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인색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니버의 이름이 중등교육 교과서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특이한 일이다. 기독교 현실주의를 제안한 윤리학자가 누구인가에 관해서는 몰라도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이 니버(교과서 명칭으로는 ‘니부어’)의 것이라는 점은 일반 상식에 속할 정도로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한국의 기독교 사회윤리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되고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다.

하지만 니버의 이러한 대중성은 그가 생전에 누렸던 미국적 대중성에 비해 규모나 열광하는 정도에 있어서 가히 따라잡을 수는 없다. 그 어떤 해석자라도 니버가 당대의 미국사회에서 대중적이었다는 점만큼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듯싶다. 그렇다면, 과연 대중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인기가 있는(popular) 인물이라는 뜻인가? 혹은 대중의 문제들에 관한 공공의(public) 인물이라는 뜻인가? 니버가 가르쳤던 뉴욕의 유니온신학교에 그의 은퇴 후 만들어진 니버 석좌교수, 라스무센(Larry Rasmussen)은 니버를 평할 때 ‘공공’의 의미에 가까운 단어들을 사용했다. 그에 따르면, 니버는 공공의 영역(public arena)에 관한 신학사상을 다룬 탁월한 저술가였으며, 마틴 루터 킹을 빼면 니버야말로 20세기 미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가였다.¹⁾

라스무센의 극찬은 그가 니버의 명예를 이어받은 석좌에 있다는 정황

1) Rasmussen L., ed., ‘Introduction’. in *Reinhold Niebuhr, The Theologian of Public Life* (Fortress Press, 1991), 1. *참고로, 라스무센은 Reinhold Niebuhr Professor of Social Ethics였다.

에서 나온 것만은 아닐 듯싶다. 라스무센에 따르면, 니버는 한 국가가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했다는 점에서 공공신학자(public theologian 혹은 ‘공공의 신학자’)일 뿐 아니라, 공적 삶에 관한 지적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신학자라 할 수 있다.²⁾ 한걸음 더 나아가, 라스무센은 니버가 공공의 지성인(a public intellectual)으로서 그 일을 즐겨했다고 평한다.³⁾ 이러한 표현들을 종합하자면, 니버는 공공의 삶에 관한 신학자(a theologian of public life)인 셈이다.⁴⁾ 니버에 관한 이러한 라스무센의 해석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 글이 선호하는 표현임에 틀림없다.

물론, 이러한 언급들이 니버를 공공신학자로 규정할 충분한 근거인 것은 아니다. 다작(多作)을 특징으로 했던 니버의 저술 중 출판된 단행본만도 21권이 넘는다.⁵⁾ 다작하는 학자의 다양한 저술과 관심사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른 이미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니버의 사회윤리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기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다. 심지어 니버에 정통하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략적인 동의를 넘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뜻에서, 니버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의 시도에서도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세심함과 동시에 창의적 소통의 시도를 요구받는다. ‘공공’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말이다. 여기에서 단순화의 오류라 함은 니버를 단숨에 현대적 의미의 공공신학자로 분류하려는 성급함을 범하지 말자는 것이며, 창의적 소통이라 함은 니버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차

2) *op. cit.*

3) *op. cit.*

4) Rasmussen L., ed., *Ibid.*, 5

5) Rasmussen L., ed., ‘Editor’s Note’ in *Ibid.*, 재인용.

단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니버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의 실마리가 역지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라는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마틴 마티(Martin Marty)는 니버를 공공신학자로 분류했다. 마티는 공공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니버의 신학을 특성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소개했다.⁶⁾ 공공신학의 미국적 대명사,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 역시 이점에 이의가 없다. 공공신학이라는 개념의 어원과 역사를 살펴보면, 마티가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분명하고 니버의 공헌을 평가하는 과정에 이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⁷⁾

이러한 정황들을 따라 가노라면, 니버를 공공신학자로 규정하는데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물론, 그것 자체도 의미있는 재발견일 수 있지만, 문제는 콘텐츠이다. 과연 무엇이 니버를 공공신학자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인가? 공공신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니버의 시대에 통용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니버를 공공신학자로 해석하려 하는 것인가?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질문들은 니버에 대한 현대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매력적일 수 있다. 이점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왜 니버를 공공신학자로 보려 하는가?’

6) Tomoaki Fukai, ‘Theology of Japan as Public Theology’ in *A Theology of Japan: Origins and Task in the Age of Globalization* (Seigakuin Univ. Press, 2005), 91.

7) M. 스택하우스,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세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북코리아, 2008), 15.

III. 시민사회의 기독교 사회윤리로

니버의 신학적 특징을 오늘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시대착오적 시도일지 모른다. 니버의 전성기, 그리고 니버가 한국에 소개된 어간에 이미 충분한 토론과 평가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글은 니버를 신학적으로 평가하거나 그의 신학이 어떤 노선에 속하는 것인지 분별하는 교리재판 소송장도 아니다. 우리가 다시금 니버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의 신학적 통찰이 오늘의 사회윤리로서 적실성(relevancy)을 지닐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특히 니버의 신학적 자리와 오늘의 한국적 맥락을 어떻게 접맥시켜서 오늘의 문제에 대면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관건이다.

이러한 뜻에서, ‘왜 니버를 공공신학자로 보려하는가?’하는 질문은 이 글의 문제의식을 대변해준다. 이 질문은 다시 우리의 관심을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마주치게 한다. 도대체 공공신학이 무엇인가에 한국의 신학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실제로, 최근의 한국신학계는 공공신학에 대한 연구에 붐을 이루고 있다.⁸⁾ 기독교윤리학에서만 아니라 기독교교육, 교회사, 성서신학을 막론하고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관심이 일고 있으며,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최신학문에 대한 단순한 유행적 관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공공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신학계에서 논의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 미국적 공공신학의 대가, 스택하우스(M. L. Stackhouse)도

8) 참고로, 필자가 섬기는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NICE, New-generation Institute of Church and Ethics>가 지난 2007년 10월 공공신학의 대가, 스택하우스 박사 초청강연을 비롯,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등의 단행본을 출판하여 한국신학계에 공공신학을 소개하고 연구의 붐을 조성할 수 있었던 점에 자부심을 가진다. 관련자료는 <http://blog.naver.com/czerom>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미 현직에서 은퇴했다. 독일의 경우, 후버(W. Huber)로 대표되는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이미 신학계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아 왔다.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 어제 오늘의 유행은 아니라는 뜻이다.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신학계가 공공신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데에는 시민사회에서의 교회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이라는 한국적 맥락이 크게 작용한 듯싶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학하는 자리에 공공신학에 대한 요청이 절실해지고 있는 셈이다. 아쉬운 점은 공공신학의 본래적 맥락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야 할 대목들이 많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가령, 공공신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스택하우스 혹은 후버에 관한 연구나 인용이 생략된 경우들은 과연 공공신학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보기에,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공공신학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신학의 분과 학문 사이의 공동연구를 통해 더욱 풍성한 결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는 니버의 기독교 사회윤리가 글로벌 시대의 공공신학으로 전환될 수 있는 몇 가지 단초들을 살펴봄으로써 공공신학적 관점에서의 니버 해석 혹은 니버의 기독교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성찰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한국 기독교윤리학회에서 니버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고범서의 관점이 패러디 형식으로 연관될 수 있겠다. 그에 따르면, 니버의 윤리적 신학은 기독교현실주의에 의한 사회정의 실현의 신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⁹⁾ 고범서가 본 니버의 기독교현실주의는,

www.kci.go.kr

9) 고범서,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908~915.

- (1) 사회문제들에 대한 신학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극복하고 사회적, 정치적 현실을 분석하고 분별적 판단을 시도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 (2) 성서적 사랑을 현실사회에서 구현함에 있어서 유평피아주의나 감상주의,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는 관점을 유지하여 초월적 정의에 대한 근사적 정의의 실현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 (3) 인간의 죄와 집단이기주의의 집요함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의의 실현이 도덕적 설득이나 호소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강제력에 의해 근사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다른 요소에도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겠지만, 필자는 주로 이 세 가지 단초에 유의하면서 니버와 공공신학의 접맥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의 목적은 자명하다. 글로벌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윤리 모색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1. 공통의 지향점: 사회문제의 신학적 성찰 필요성

공공신학이란 과연 무엇이며, 왜 니버를 공공신학의 맥락에서 해석하고자 하는가? 여기에는 사회현실과 사회문제에 관한 신학적 관심과 성찰이라는 공통의 계기가 작용한다. 고범서의 해석 (1)에서 볼 수 있듯이 니버가 사회현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중요하게 생각던 것처럼, 공공신학 역시 신학적 성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다. 어찌 보면 공공신학은 니버가 보여준 사회현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강도와 범위를 훨씬 더 확장 혹은 심화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니버의 기독교 사회윤리와 공공신학의 관심 사이에는 ‘기독교 사회윤리’의 중요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시대의 변화’라는 변수가 작용한

다. 니버의 관심이 사회현실에 대한 분석과 성찰을 통해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세우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공공신학은 그 관심의 지평을 글로벌 시민사회의 문제로 확장시켰다. 니버의 시대가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사회적 갈등 및 한국전쟁을 포함하는 냉전체제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맥락은 다원주의가 득세하고 다문화적 현상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는 글로벌 시민사회라는 점에서 시대적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버가 제안한 기독교 사회윤리는 여전히 유효한 통찰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시민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윤리’에 관한 모색이 필요한 셈이다.

필자가 보기에, 니버의 관점이 주로 정치와 사회정책 및 국가의 강제력의 문제, 그리고 국제정치와 정의의 질서에 관한 것이었다면, 공공신학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독교 사회윤리의 범위를 확대시키려는 시도를 하겠다. 시민사회에 관한 기독교 사회윤리학적 성찰을 ‘공공신학’이라는 개념에 포괄함으로써, 우리시대를 위한 윤리적 아젠다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니버의 경우, 사회현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그의 본질적 문제의식에 속한다. 예를 들어, 니버의 인간개념부터가 이미 사회현실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거스타프슨(J. M. Gustafson)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신학자가 제시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다. 거스타프슨에 따르면, 니버야말로 그러한 신학적 거장이다.¹⁰⁾ 일찍이 니버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신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¹¹⁾ 스택하우스는 이 분야에서 니버를 자주 인용하고 그의 관심에 주목한다. 특히 니버가 세상과 인간과 신학에 관한 대안적 개념들

10) Gustafson, J. M., *Can Ethics be Christian?* (Univ. of Chicago Press, 1977), 123.

11) Stackhouse, M. L., ed., *On Moral Business: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sources for Ethics in Economic Life* (Wm. B. Eerdmans Pub. Co., 1995), 301.

을 성찰했고 기독교적 인간관의 회복만이 개혁에 관한 기약할 수 있다고 했던 대목에 관심을 가진다.¹²⁾ 공공신학의 원칙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던 니버의 인간관을 인용하면서 공공신학의 이론적 기초로 삼는다.¹³⁾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인간관에 대한 변증(apologia)에서도 니버의 이중적 관심, 즉 죄와 구원이라는 요소들에도 주목한다.¹⁴⁾

이처럼 스택하우스의 주목을 받는 니버의 신학은 인간이해 그 자체에 국한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사회현실에 대한 신학적 성찰에 성서적 인간이해를 기초로 삼았던 것이라 해야 옳다. 가령,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Moral Man and Immoral Society*)에서 말했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구분에 관한 니버의 독창적인 통찰¹⁵⁾,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인간은 유한한 상대적 존재임을 강조한 『비극을 넘어서』(*Beyond Tragedy*)는 니버의 시대상을 넘어 모든 시대에 적용될 기독교적 인간이해 그 자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¹⁶⁾ 『인간의 본성과 운명』(*The Nature and Destiny of Man*)은 고전과 현대의 인간관을 개괄하고 성서적 관점이야말로 인간에 관한 가장 공정한 잣대가 된다는 신념을 보여주었다.¹⁷⁾ 그런가하면, 『기독교 현실주의와 정치적 문제』(*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는 니버의 반공주의적 성향이 무르익은 때의 저술이기는 하지만,¹⁸⁾ 이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독교현실주의의 원천으로

12) Stackhouse, M. L., *Creeds, Society, and Human Rights: A Study in Three Cultures* (Wm. B. Eerdmans Pub. Co., 1984), 121.

13) Stackhouse, M.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Univ. Press of America, 1991), 29.

14) Stackhouse, M. L., *Apologia: Contextualization, Globalization, and Mission in Theological Education* (Wm. B. Eerdmans Pub. Co., 1988), 162~183.

15) Niebuhr, 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Charles Scribner's Sons, 1932).

16) Niebuhr, R.,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17) 고범서, 같은 책, 304.

삼아 사회문제와 사회적 현실에 대한 관한 신학적 탐구였다.

이것은 고범서의 해석에 나타난 것처럼, 니버의 신학이 현실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던 여타의 신학들과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공신학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대표적으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경제를 위시한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신앙의 공공성 세우기 혹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 관심을 촉구한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기독교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얼핏 보면, 이것은 기존의 ‘교회 밖을 향한 신앙의 실천’을 말하는 것과 유사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의식과 이해의 차원이 다르다. 기독교신앙 자체가 공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멸사봉공(滅私奉公)으로 표현되는 아시아적 가치관 그 이상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앙을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거나 개인의 실존적 고백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혹은, 기독교신앙을 사사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사사화(privatization)에 대한 정면도전인 셈이다. 사사로움이란 개인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사사로움 혹은 집단적 사사로움 또한 공격적이지 못한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믿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넘어서 시민사회의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앙이 시민사회와 격리되거나 소종파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경계인 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택하우스는 기독교의 소종파주의적 시도를 거부한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는 현대문화를 악으로 간주하여 고결한 경건을 표방함으로써 도덕적 순수성을 가장할 수도 없고 현대사회의 도전들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18) Niebuhr, R.,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Charles Scribner's Sons, 1954).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성령께서 지구촌의 구원가능성에 생명력을 주신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일 수 없다.¹⁹⁾ 게다가, 교회건물 자체가 이미 시민사회 한 복판에 서있고 신앙인들에게도 참정권을 비롯한 시민의 권리가 동등하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시민적 정황을 부정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곤란하다. 오히려 글로벌 시민사회의 기독교 사회윤리를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라 하겠다.²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니버의 관심 역시 소중과지향적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털어버린 것이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심지어 정치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니버는 교회 안에 안주하거나 교회의 집단적 사사로움에 매인 소중과적 사고방식을 탈피한 것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니버는 교회가 사회문제들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실천적으로 참여하며 사회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혹은 니버의 관심을 교회 안에서의 ‘우리끼리’의 평화를 강조하기보다 구체적인 사회현실을 향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봄직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니버의 사회현실을 향한 관심은 공공신학에 계승,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합리성을 명분으로 모든 영역에서 종교적 색채를 걷어내고자 하지만, 역사적으로 시민사회의 근저에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고 기독교를 배제해야 시민사회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지극히 편협한 사고방식일 뿐이다. 반대로, 교회 스스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다. 교회 내에서 은연중에 호응을 얻고 있는 소중과적 움직임은 자칫 교회로 하여금 시민사회에 간섭하기 전에 교회부터 교회답게 세워가자는 그럴싸한 슬로건 탓에 기독교를 시민사회의

19) Stackhouse, M. L., ‘Joining the Discussion’ in Stackhouse ed.,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Abingdon Press, 1995), 127.

20) 문시영, 「공공신학 실천을 위하여: 公-私의 이분법을 넘어서」,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북코리아, 2008), 45-61.

계토로 만들어 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필자가 보기에는 두 방향의 움직임, 즉 시민사회가 종교를 배제하려는 시도나 교회가 시민사회로부터 격리되려는 시도 모두 온당하지 못하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시민사회를 향하여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보여주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어야 마땅하다. 바로 여기에 정치 문제와 사회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니버의 흔적을 공공신학의 틀 안에서 재해석하고 오늘의 맥락에서 활성화시킬 단초가 있는 셈이다.

2. 인식의 전환: 사회정의에서 공공성의 에토스로

니버와 스택하우스의 만남에 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은 기독교 사회윤리의 주제에 관한 인식의 자리이다. 고범서의 해석 (2)에서처럼, 니버가 유토피아주의나 감상주의,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고 초월적 정의에 대한 근사적 정의의 실현가능성을 말했다면, 스택하우스는 에토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니버가 사회정의를 주제로 삼았다면,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공공성을 주제로 삼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 스택하우스의 문제의식은 니버가 제안한 기독교사회윤리의 재해석 내지는 지평확장의 시도라 볼 수 있다. 『글로벌 시대의 기독교사회윤리』(*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에서 그는 기독교윤리의 갱신 혹은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인간의 영적, 사회적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 기독교전통이 시민사회와 충돌하여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 버리지 않으려면 기독교윤리의 갱신이 필요하다. 특히 삶의 경제적 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²¹⁾ 이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택하우스는 시민사회의 기독교 사회윤리

21) Stackhouse, M. L.,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Reforming Protestant Views* in Stackhouse ed., *Ibid.*, 11.

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을 니버 시대의 그것처럼 정치와 사회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삶(economic life)에까지 확대시킨다.

여기에서,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혹은 경제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경제’의 개념은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윤리적 요소를 포괄한다.²²⁾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일부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강제력, 인간의 동기, 문화가치와 도덕원칙 및 윤리적 목적의식과 종교의 영향력 등을 배제한 채 경제학을 추구하는 것은 경제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낳을 뿐이다.²³⁾ 말하자면, 경제는 삶의 조건에 대한 포괄적 표현인 셈이다. 바로 이것이 공공신학의 문제의식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대개의 경우, 시민사회에서 종교의 의미는 축소되거나 생략되기 쉽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맹점이다. 오히려 사회의 정책과 제도의 형성에는 종교, 특히 서구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하다.²⁴⁾ 종교를 사적인 영역으로 몰아넣으려는 시도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예를 들어,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마르크스 이후 근대화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논쟁은 아마도 베버(Max Weber)가 말한 자본주의 정신으로서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세속적 금욕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쟁이다.²⁵⁾

스택하우스는 베버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가 경제 및 사회관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신했다. 이 과정에서, 스택하우스는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을 에토스의 중요한 예로 소개하면서, 자본주의 에토스 형성에 기독교가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²⁶⁾ 나아가 스택하

22) Stackhouse, M. L., *Ibid.*, 16.

23) Stackhouse, M. L., *op. cit.*

24) 이상훈,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관한 이해,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북코리아, 2007), 29-52.

25) Stackhouse, M. L., *Ibid.*, 33.

26) 신기형, 스택하우스 윤리사상의 특성과 공헌,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

우스의 공공신학은 기업의 문제 및 경제윤리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다. 그는 시장의 자본들 중에 이른바 도덕자본(mor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종교, 특히 기독교의 신앙체계와 삶의 방식, 즉 에토스에 있다. 말하자면, 기독교는 우리시대를 어떤 수식어로 표현하든 간에, 그것이 글로벌 시대이건 포스트모던 시대이건 시민의식이 각성된 시민사회이건 간에 에토스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바람직한 에토스의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 시대가 구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의 역할은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바람직한 신념과 가치체계를 세워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현실의 문제에 관한 니버적 성찰이 공공신학에 계승, 확대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지평의 확대: 사회현실의 윤리에서 시민사회의 윤리로

니버의 기독교 사회윤리가 공공신학과 접맥되는 또 하나의 자리는 이른바 ‘구조’에 관한 사고방식과 문제해결의 접근방식이다. 고범서의 해석(3)에서는 니버의 기독교 사회윤리를 방법론적으로 조명한다. 사회정의의 실현이 개인윤리적 방식 즉 도덕적 설득이나 양심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사회적 강제력에 의해 근사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신학의 관점을 다루기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다. 그 하나는 니버에 대한 정치신학적 관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니버를 이해함에 있어서 국제정치를 포함하는 정치문제들에 국한시켜서는 곤란하다. 물론, 니버에게 그러한 요소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미국정부의 자문역을 비롯한 현실정치에 관련한 일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니버가 정치만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니버가 특정한 정치적 사안보다 더 큰 개념의 사회문제와 현실에 관심을 쏟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니버의 문제의식을 그의 시대, 즉 2차 대전과 한국전, 월남전으로 상징되는 냉전체제에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고범서가 말한 것처럼, 니버의 특수한 용어, 덜 나쁜 악(lesser evil)이라는 단어는 니버의 독특한 신학의 자리를 반영하는 측면이 강하다. 니버가 보기에, 공산주의는 개방사회의 뿌리를 송두리째 말살하는 데 비해서 우익독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자유를 위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덜 나쁜 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이것은 우익독재 그 자체를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다 냉전체제라는 시대상을 반영한 현실주의적 관점이라는 점에서 니버적 맥락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뜻에서, 니버의 저술에서 읽히는 주장들은 그 시대의 미국적 정황에 한정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그 행간에 담긴 통찰, 즉 기독교의 인간관에 바탕한 사회윤리의 구현이라는 하나의 통찰(insight)이라 보는 것이 옳겠다. 니버가 씨름한 문제들은 기독교 사회윤리가 본격적으로 적용된(applied) 하나의 시대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니버의 문제의식 그 자체는 시대적 맥락을 넘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니버의 관심은 글로벌 시민사회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사회에 대한 분석과 예언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노력은 여전히 책임적인 과제이다. 다만, 니버가 정책과 권력 및 강제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던 시대의 관심사, 즉 정치신학적 영역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모든 영역에 대한 것으로 확대시킬 때가 되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정치영역에서 시민사회로 영역의 확대 혹은 방향전환이

27) 고범서, 앞의 책, 836.

필요한 시점이다. 어찌 보면 냉전체제의 니버 시대보다 더욱 절실한 것인지 모른다. 신자유주의는 물론이고 종교다원성의 문제와 복잡하게 맞물린 세계화문제에 대한 신학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민사회에서 경제적 삶의 문제와 가족문제, 인권문제가 신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이처럼 니버에 관한 선입견을 벗어나면, 공공신학적 관심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특히, 개인윤리를 넘어 사회윤리적 접근방식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시민사회의 문제들은 개인의 양심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제도와 정책을 통한 사회윤리적 접근을 요청한다. 실제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이 다루는 경제적 삶에 관한 성찰이나 가족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세계화의 문제 등은 개인윤리의 문제를 넘어 제도와 기구와 관련된 주제들이다.

이러한 뜻에서, 스택하우스는 공적인 삶(public life)을 신학의 주제로 삼고 현대의 정치·경제적 구조(the political-economic structures)를 다룰 것을 강조한다.²⁸⁾ 시민사회가 지니고 있는 다층적 요소들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구조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실천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니버의 사회윤리 방법론 혹은 그 흔적을 재발견할 수 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니버가 사회적 접근의 범위를 사회현실과 정책의 영역에 집중했던 것을 공공신학은 경제의 영역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전반에 관한 것으로 확대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스택하우스의 탁견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는 글로벌 변화(Global change)의 핵심요소들과 기독교윤리 사이의 관계설정을 강조하면서, 기독교신앙이 시민사회가 지닌 삶의 다층적 다원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독교신앙의 깊이를

28) Stackhouse, M.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Univ. Press of America, 1991), intro. ix.

더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²⁹⁾ 특히 현대적 의미의 기독교 사회윤리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이 점차 축소되고 비정부기구, 즉 종교단체를 포함하는 시민사회의 힘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³⁰⁾ 바로 이것이 니버의 시대에 ‘사회정의’ 문제에 적용되었던 기독교 사회윤리가 오늘의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재조명되고 확대, 심화되어야 할 것인지를 암시해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니버의 기독교 사회윤리는 공공신학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시민사회를 위한 윤리로 그 지평이 확장되는 과정에 있다. 앞서 고범서의 니버 해석을 패러디하여 적용해 본다면, 스택하우스를 통해 본 니버는 적어도 다음의 관점에서 공공신학을 배태(胚胎)하고 있었다.

- (1) 교회 안에 머물기 원하거나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소종파적 윤리’를 극복하려 했다는 점에서.
- (2) 사회문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구현하려 했던 목적의식이 ‘교회의 공공성’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 (3) 개인윤리를 넘어 사회윤리를 세우려 했던 점이 ‘글로벌 시민사회를 위한 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니버의 통찰이 공공신학을 통해 재조명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현대적

29) Stackhouse, M. L., ‘An Introduction’ in Stackhouse M. L., ed., *The Local Church in a Global Era: Reflections for a New Century* (Wm. B. Eerdmans Pub. Co., 2000) 3.

30) Stackhouse, M. L.,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Reforming Protestant Views’ in Stackhouse ed.,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Abingdon Press, 1995), 58.

의미의 고전이라 말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물론, 니버의 윤리가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며, 비판적 고찰을 통해 보완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개인윤리의 가치와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나 제3세계를 향한 배려가 부족한 점 등은 니버의 사회윤리에서 보완되고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니버를 공공신학의 선구자로 보려는 것은 오늘의 교회가 시민사회를 향하여 제안할 사회윤리를 니버에게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IV. 니버를 넘어서

우리는 이제까지 니버의 기독교사회윤리학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계승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특히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니버의 재발견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명, 니버의 기독교사회윤리학을 위한 통찰은 지나간 시대의 그것일 수 없다. 여전히 유효한 통찰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그것의 본질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오늘의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노력은 니버의 몫이 아니라 글로벌 시민사회를 사는 우리의 몫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니버 넘어서기’를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는 니버의 기독교 사회윤리를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국시민사회에서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한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하나는 니버의 시대적 맥락을 넘어서 오늘의 글로벌 시민사회를 위한 공공신학적 성찰에 더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바라는, 오늘의 한국교회가 직면한 안티 세력의 도전과 시민적 투명성의 요구 앞에 니버의 기독교 사회윤리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결과적

으로 교회의 윤리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문헌

고범서. 『사회윤리학』. 나남, 1993.

_____. 『라인홀드 니버의 생애와 사상』. 대화문화아카데미, 2007.

문시영. 「공공신학 실천을 위하여: 公-私의 이분법을 넘어서」,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북코리아, 2008.

신기형. 「스택하우스 윤리사상의 특성과 공헌」,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북코리아, 2007.

이상훈.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관한 이해」,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북코리아, 2007.

Gustafson, J. M.. *Can Ethics be Christian?* (Univ. of Chicago Press), 1977.

Niebuhr, 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Charles Scribner's Sons), 1932.

_____. *Beyond Tragedy* (Charles Scribner's Sons), 1937.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1, Human Nature* (Charles Scribner's Sons), 1941.

_____. *The Nature and Destiny of Man, Vol.2, Human Destiny* (Charles Scribner's Sons), 1943.

_____. *Christian Realism and Political Problems* (Charles Scribner's Sons), 1954.

Rasmussen L., ed.. *Reinhold Niebuhr, The Theologian of Public Life* (Fortress Press), 1991.

Stackhouse, M. L.. *Creeds, Society, and Human Rights: A Study in Three Cultures* (Wm. B. Eerdmans Pub. Co.), 1984.

_____. *Apologia: Contextualization, Globalization, and Mission in Theological Education* (Wm. B. Eerdmans Pub. Co.), 1988.

_____.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Univ. Press of America), 1991.

_____. *Christian Social Ethics in a Global Era* (Abingdon Press), 1995.

_____. *On Moral Business: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sources for Ethics in Economic Life* (Wm. B. Eerdmans Pub. Co.), 1995.

_____. *The Local Church in a Global Era: Reflections for a New Century* (Wm. B. Eerdmans Pub. Co.), 2000.

Tomoaki Fukai., 'Theology of Japan as Public Theology' in *A Theology of Japan: Origins and Task in the Age of Globalization* (Seigakuin Univ. Press), 2005.

논문접수일: 2008. 10. 29

심사개시일: 2008. 11. 12

심사완료일: 2008. 11. 22